하나금융 '축구 마케팅'…이보다 잘 나갈 순 없다

4년째 모델 손흥민 득점왕 쾌거
"열정 스토리, 하나금융과 닮아"
브라질 등 6월 4연전 과감한 추진
모바일뱅킹선 입장권 예매서비스
대전하나시티즌은 2부 승격 희망

하나금융이 모델 손흥민 효과와 6월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축구 마케팅' 호재로 미소 짓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위 사진 맨 아랫줄 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대전하나시티즌 프로축구단, 모바일뱅킹 하나원큐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예매 서비스를 소개하는 손흥민. 사진제공 | 하나금융

하나금융이 축구 마케팅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모델인 손흥민(30·토트넘)이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2021~2022시즌에서 23골을 기록해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면서 주목받은 데 이어, 6월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 초청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동적 이미지의 손흥민 효과

먼저 2018년 5월 모델 계약을 체결해 4년 째 모델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로 EPL 득점왕에 등극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하나금융은 손흥민의 모델 발탁에 대해 "동료를 배려하며 노력과 열정으로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성장해온 손흥민의 성공스토리가 하나금융의 경영철학인 인간 중심의 '휴매니티'와 잘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손흥민의 역동적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광고를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공개한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CF가 유튜브에서 론칭 한 달 만에 1000만 조회 수를 돌파해 금융권 광고 최초로 최단기간 1000만 뷰를 달성한 게 대표적이다.

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앞서 하나은행이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8'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흥민 이모티콘' 증정 행사도 조기 마감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올해 11월 카타르월드컵이 열리는 만큼, 손흥민과 함께하는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가대표 금융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 이전에도 하나금융의 남다른 축구사랑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1998년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하나원큐 K리그 및 FA컵 대회 타이틀 스폰서, 대전하나시티즌 프로축구단 운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시민구단 대전 시티즌을 인수해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재창단했다. 현재 2부리그인 K리그2에서 활약 중인 대전 하나시티즌은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덕에 업그레이드된 경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와 박수를 받고 있다. 30일 기준 2위(승점 32)를 기록하고 있어 1부리그 승격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6월,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도 '인기'

축구를 활용한 고객마케팅도 눈길을 끈다. 하나은행 초청으로 6월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가 대표적으로 네이마르(브라질), 살라(이집트)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참여하는 만큼 축구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6월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칠레전,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전,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집트전을 연다. 하나은행 측은 "11월 열리는 카타르월드컵에서의 성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경기가 될 것"이라며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우루과이전을 대비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의 강호들을 대거 초청했다"고 했다.

특히 모바일뱅킹 하나원큐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입장권 예매 서비스를 오픈해 고객마케팅을 강화했다. 이 서비스 이용 시 하나은행 고객을 겨냥한 '하나원큐존'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경기별로 최소 3600여 석부터 최대 5800여 석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브라질전의 경우, 프리미엄석부터 붉은악마 응원구역인 레드존까지 총 5800여 석의 하나원큐존을 확보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나원큐 로그인 후 '생활/제휴' 카테고리의 티켓 예매 메뉴에서 진행하면 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계좌 없이도 일반회원 가입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측은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티켓 예매 등 차별화 서비스를 통해 하나원큐가 개방형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며 "11월 카타르월드컵이 열리는 만큼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축구 콘텐츠를 마련해 고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충북 청주시 분평동 소재 'KB국민은행X이마트24' 디지털 제휴 점포.

은행과 편의점의 멋진 만남

KB국민-이마트24, 디지털 제휴 점포 오픈
상품 구매하며 은행 업무까지 한번에 해결

KB국민은행과 편의점 이마트24가 충북 청주시 분평동에 'KB국민은행X이마트24' 디지털 제휴 점포를 선보였다. 편의점 이마트24와 KB국민은행의 KB디지털뱅크가 연결된 신개념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편의점에서 상품 구매를 하면서 은행 업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고객의 금융접근성 유지 및 편의점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STM(스마트텔러머신)을 통한 통장발행, 현금 및 수표 입출금, 체크카드 및 보안매체(보안카드, 카드형OTP) 발급이 가능하다. STM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공휴일 및 주말은 6시)로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 평일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 KB화상상담전용창구에서는 입출금 통장개설, 적금·예금 신규, 인터넷 뱅킹 신규·해지, 신용대출 등 대면채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화상상담전용창구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픈 기념으로 31일까지 KB국민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50% 할인(최대 1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측은 "편의점과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면서 KB만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영업점 운영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이마트24 측은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 제휴 점포가 고객 만족과 양사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카카오뱅크 롯데 터치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카카오뱅크 롯데 터치카드'(사진)를 내놓았다. 카카오뱅크 롯데카드 회원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스티커형 카드로, 휴대폰 뒷면 등 원하는 곳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이 카드로 결제 시, 카카오뱅크 롯데카드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고 실적도 합산된다. 카드 디자인은 '이모션'과 '러브' 총 2종으로,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 '춘식이'를 적용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고용평등 공헌 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여성 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여성 리더십을 함양해왔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운영으로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여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신한, 고객자문단 '쏠메이트2기' 모집

신한은행, 고객자문단 '쏠메이트 2기' 모집

신한은행이 31일까지 고객자문단 '쏠메이트 2기'(사진)를 모집한다.

설문조사, 의견제안, 상품·서비스 제작 프로젝트 등 고객 직접 참여를 통해 고객 관점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연령별 각 1000명씩 총 5000명이 3개월간 활동한다. 모바일뱅킹 신한 쏠(SOL)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시 1만포인트, 설문조사와 의견제안 채택 시 5000포인트, 프로젝트 참여 시 10만포인트, 최우수 의견 고객에게 100만포인트 등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마스크 자원순환 캠페인 '희망리본' 실시

우리은행이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하는 마스크 자원순환 캠페인 '희망 리본(Re-born)'을 실시한다. 마스크 필터 제조사와 협업해 사용 후 버려지는 폐마스크를 수거해 자원순환용품을 제작한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본점과 우리금융상암센터 등 주요 영업점에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향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자원 효율화와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해 ESG경영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31일 (화) 음력: 5월 2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청색 길방:동
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인덕을 보게 된다.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행위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밑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한 날이다.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취업 운은 좋은 날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의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격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 정리에 힘써야 할 때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길방:서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곧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떳떳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오늘의 날씨

31일(월)

지역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오전/오후)
서울	14	26	0/0
인천	15	22	0/0
춘천	12	26	0/0
강릉	18	28	0/0
대전	13	28	0/0
전주	13	27	0/0
광주	14	28	0/0
대구	16	30	0/0
부산	17	27	0/0
창원	16	28	0/0
제주	17	26	0/0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3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